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개교 20주년 이강숙 초대 총장 축하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게 되는 것이 인간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 있다. 교육과 인간의 관계가 그만큼 불가사의한 것이라는 말일게다. 미국의 어느 주립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인간이 무엇이며 또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한 학자가 그 대학과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일주일에 한 시간 씩 학교의 나무 그늘 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그러면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 대학의 제의에 학자는 응했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일은 없었지만, 강의실에서 행해지는 속칭 교육이라는 것으로부터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학자로부터 학생들이 배웠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그것이었다. '누가 어디에 있기만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나의 믿음은 한 사회의 교육 문화 풍토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발전한다.

교육의 승패는 드러난 교과 과정 보다 숨어 있는 교과 과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가능하다. 드러난 교과 과정이란 그 학교의 요람에 적힌 공개된 교과 과정이다. 숨어 있는 교과 과정이란, 그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그 학교를 감싸고 있는 교육 문화라는 공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학생들이 엄청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힘을 의미한다.

배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찬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불변의 진리를 나는 믿는다.

20년밖에 자라지 않는 나무로부터 수많은 알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가를 배출한 학교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면 '열매를 보고 학교를 알리라.' 라는 말을 어찌 믿지 못하겠는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의 뿌리인 자기, 그 자기가 만든 기준의 차원에서도 치열한 학생들이 득실거리는 공간이 한국예술종합학교다. 자기가 만든 기준을 찾지 못해 아직 헤매고 있는 자가 없지도 않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기준의 차원에서 최상의 나, 최선의 내가 되어 개성미 짙은 예술적 열매로 세상에 얼굴을 나타낸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학교 당국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